

팝의 성지 미국을 강타한 K-POP 열풍, 어떻게?

지난 1월, 영국 BBC는 'BTS: K-Pop 왕자들의 지속적인 힘'이란 제목으로 방탄소년단을 소개했다. 작년 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s, AMAs)부터 이어진 방탄소년단에 대한 외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BBC는 방탄소년단이 작년 한해 K-Pop이 그간 정복하지 못했던 악명 높고 힘든 미국 시장에 도달했다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상' 수상하고 'MIC Drop' 리믹스가 미국 아이튠즈 '탑 송 차트'에서 한국 그룹 최초로 1위를 차지한 점 등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들을 나열했다. BBC는 방탄소년단이 지속적으로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해왔으며 십대들에게 분명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에도 그룹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BBC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사 말미에 인용된 세계적 브랜드 전략 분석가 마틴 롤(Martin Roll)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K-Pop이 단순히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한류 열풍은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며 한국에게 축복 같은 존재다."라고 언급, K-Pop이 스쳐가는 유행이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됐음을 재확인 시켜줬다.

이처럼 세계 언론과 음악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 신드롬을 모멘텀으로 K-Pop이 마니아들이 즐기는 비주류 문화를 넘어 주류 문화가 됐음에 주목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K-Pop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K-Pop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까지는 그동안 수많은 가수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원더걸스를 비롯해 보아, 세븐, 비, 소녀시대 등이 미국 음악 시장에 진출했다. 보아는 2009년 영어 앨범을 발매하고 빌보드 차트 200위 중 127위를 기록했다. 원더걸스는 2009년 '노바디'의 영어 버전으로 빌보드 차트 100위 중 76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들이 순위권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했다.



▲ KCON 2018 뉴욕 콘서트가 열린 NY컨벤션센터에는 역대 최다인 5만 3천명의 K-Pop팬들이 몰려드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미국 시장에서 영어 노래가 아닌 K-Pop 자체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계기를 만든 것은 사이의 '강남스타일'이다. 특히 빌보드는 비영어권 음악에 대해 보수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강남스타일의 성과는 K-Pop 콘텐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12년 발매된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빌보드 차트 핫 100에서 2위를 기록했다. 빌보드 핫 100은 라디오 방송 횟수와 스트리밍, 판매량 등을 바탕으로 싱글앨범의 상위 100개를 선정하는 차트이다. 강남스타일은 이 차트에서 무려 31주간이나 선전을 했다. 뮤직비디오도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31억 뷰를 넘었다.

강남스타일로부터 6년여가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밴드로 올라선 BTS(방탄소년단)가 등장했다. BTS의 'Love Yourself: Tear' 앨범은 발매 첫 주만에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와 핫100의 10위에 동시에 진입했다. 이는 케이팝 콘텐츠로서는 최초 및 최고의 성적이다.

음악 콘텐츠의 성공은 콘서트 등 다른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다.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TicPick에 의하면, BTS의 투어 콘서트 평균 가격은 약 479달러에 달한다. 기존 미국 시장의 인기 가수인 브리트니스 피어스의 콘서트 평균 가격이 약 353 달러, 엘튼 존 286달러, 브루노 마스, 에드 시런 및 데일리 스유프트의 티켓 평균 가격이 200달러 이하인 것을 감안하

면 BTS의 콘텐츠 파워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케이팝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된 것에는 CJ E&M의 케이콘(KCON)이 큰 역할을 했다. KCON은 2012년부터 북미, 중남미, 중동, 유럽, 아시아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류 콘서트이다. 특히 KCON을 찾은 전 세계 누적 관객 68만 7천 명 중 약 64%가 미국에서 열린 KCON에 참여했다. 지난 6월 뉴욕 콘서트에는 역대 최다인 5만 3,000명의 K-Pop 팬들이 모여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다. 'KCON 2018 NY'의 콘서트 티켓은 지난 5월 판매 오픈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같이 케이팝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18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첫번째 이유는 케이팝 콘텐츠의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리듬이다. 이어서 가수의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 뛰어난 퍼포먼스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케이팝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것도 중요 포인트이다. 상당수의 아이돌 멤버는 노래 활동뿐 아니라 연기 활동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예능 프로그램의 MC를 맡거나 패널로 참여하기도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도 크다. BTS의 경우 트위터, 유튜브, 브이앱 등 전 세계 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해왔다.

케이팝 콘텐츠의 인기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빌보드 매거진 뉴욕 담당자 제프 벤자민은 "케이팝은 한류의 일부이며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브랜드의 위상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케이팝 앨범의 수익 뿐 아니라 부수적인 관련 상품들을 통한 수익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관계자는 "국내 기획사나 해외 판매처와의 거래를 통한 케이팝 관련 제품의 유통은 미국 시장에서 성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

www.myevergreenschool.com